

### 조계종 교육원 법계별 연수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범 적용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이 내년부터 법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10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법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승려 연수교육 법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계별 연수교육은 종도로서 종단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법계별 역할에 따른 특성화 교육과 현대사회의 맞는 승가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된다.

승남 5~9년에 해당하는 견덕·계덕의 경우 수행과 전법능력을 향상하고 종단과 사회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좌가 진행되며,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승남 10~19년인 종덕·정덕은 종단적 마인드를 구축하고,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신도상담·수련회 지도·지역포교 전략 등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구 및 종단의 소임을 맡는 대덕·혜덕 법계에 대한 교육은 대사회적 마인드를 기르고 국제포교, 교구본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종덕·현덕 법계는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 같은 연수교육은 법계별로 2박3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각 승가고시 응시 자격조건과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법계별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점수(30점)가 부여되고, 2015년부터 연수교육 점수와 함께 각각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신종일 기자

### “대선 개입 참회하라” 대불청, 23일 성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국방부 대선 개입에 대한 공개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불청은 10월 23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환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관권으로 제어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불청은 "전교조 규약을 지금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정부 차원에서 왜곡하고 국민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이나 기자

# 東大 불교대학, 비상을 꿈꾸다

## 11월 26일 '비전 선포'... 불교센터 건립 등 추진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이 2014년 설립 108주년을 맞이하며 '비전2020 선포 및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은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비전 선포식 및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소속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불교경영 최고학과, 석학회 등 동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승석 불교대학장은 "동국불교 108년의 역사를 맞이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를 불교 이념으로 선도하기 위한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국대 불교대학·대학원은 2020년을 목표로 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나선다.

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은 단과대학이 없어 개별적으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 연구 및 교육 등을 하나로 모은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통해 불교학의 선진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0년까지 지속 변화 계획 학부구조, 학문 체계 정비 해의 불교대학과 자매결연 세계 불교학 거점 '발돋움'

이와 함께 '비전 2020'에는 △학부·대학원의 연계 활성화 △산학협력과교과개발 및 확장 △불교학 허브(HB)구축 △한국불교세계화 인프라 구축 △국제적 학문 후속세대 육성 및 불교인재 양성 △불교종합정보센터 운영 △불교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안이 담겼다.

비전 2020 계획으로는 제1분과인 교육

과 연구 분야에 중추 스님과 고영섭 교수가 포진돼 대학원 및 학부구조, 학문 체계를 정비하고 역경 및 포교, 불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 불교 외전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와 불교대학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분과인 국제화와 세계화 분야에는 황순일 교수와 김중욱 교수가 포진돼 해외 불교대학과 자매결연 확대, 국제적 불교인재 육성, 동북아 3국 복수학위 취득, 동아시어 수행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진한다. 제3분과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야에는 신성현 교수와 김하주 교수가 나서 불교 및 교사(敎史) 전시사업과 불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불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또 사찰 및 불교단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국불교투어를 통한 홍보 또한 진행한다.

정승석 불교대학장은 "이번 비전2020 추진을 통해 불교대학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 중심의 불교대학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 추진 및 국내 인문학과 세계 불교학의 거점화를 위해서는 동국불교센터 건립이 필요한 만큼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원 스님에게 포교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신명나게 전법의 길에 나섭시다”

### 조계종 25회 포교대상 시상식...제원 스님 등 17명 수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포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계종 포교대상이 포교 일선의 부루나 존자들에게 전달됐다. 조계종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5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정상인 포교대상에는 서울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과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장이 수상했다.

제원 스님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남은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마주치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기대, 꿈을 전하라는 당부대로 기쁘게 이 상을 받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982년부터 1만 명이 넘는 포교사가 배출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이날 상은 이분들과 함께 받은 것"이라며 "남은 여성 행동하는 포교로 계속 전법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인천 수미정 사 회주 종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포교위원장상인 원력상은 공군본부 군종실 운영과장 각원 스님과 서울 비로자나국 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 월정사 문수청년회 동 단장1곳과 11명이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 “역사의 치욕 되풀이해서는 안 돼”

### 10.27법난 33주년 기념법회 11월 전국순회 행사도 계획

10·27법난 33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조속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기념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행사를 갖고 10·27법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자리에는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등 피해자와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 정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10·27법난 관련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의 기념사를 대신한 법광 스님은 "10·27법난은 신군부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우리 불교가 처참하게 폄훼되고 능욕당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10·27법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한국불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만 스님은 인사



조계종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행사를 갖고 10·27법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말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치욕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이를 등불삼아 불교의 지도적 위상을 바로 세우 나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신군부 정권의 조직적 인 불교 침략으로 많은 불제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

우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 중순 제주, 광주, 충청 등을 돌며 각 지방 불자들과 10·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도 연다. 조계종은 "서울, 전주, 대구, 광주, 강원 등을 돌며 대학생 불자들에게 10·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알리고,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국가권력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모임을 연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 한강서 숨진 '6·25고훈' 극락왕생 발원

### 한강수상법당, 22일 수륙재

한강수상법당 방생도량(회장 이근호)이 한강에서 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대재를 개최했다. 10월 22일 수상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음력 9월 18일 지장제일에 맞춰 열렸다. 특히 이날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희생된 유주 무주 고향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아산병원에 간이식 수술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저 모든 삶이 감사하게 되었다. 한강에서 인타

깝게 유명을 달리던 모든 분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희생된 분들의 왕생 극락을 기원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근호 회장은 "한 해에 한강에서 자살자가 500명이며 사고사로 숨지는 이들이 500명"이라며 "매년 우리 법당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법회를 열고 있는데 금년에는 6.25희생자들을 위해 천도재도 함께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박희도 前육군참모총장, 김홍래 前공군참모총장, 박일룡 前경찰청장, 송재은 동국대 명예교수, 정천구 원장대 총장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한강수상법당 방생도량은 10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대재를 열었다.

##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아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엔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창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 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 고사의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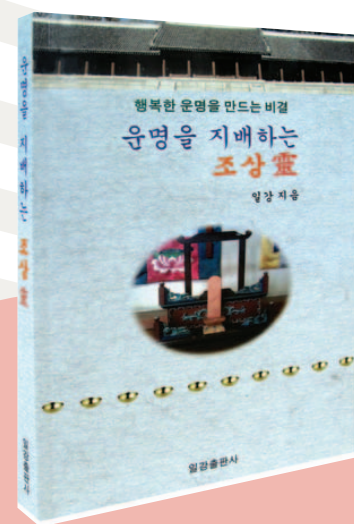
### 다비의식집 (2010 신간)

누구나 간편히 가리려면 의식집, 수가 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체 후 최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 신간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삼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1144쪽 | 값 13,000원